

대전발전 60년, 광역시승격 20년 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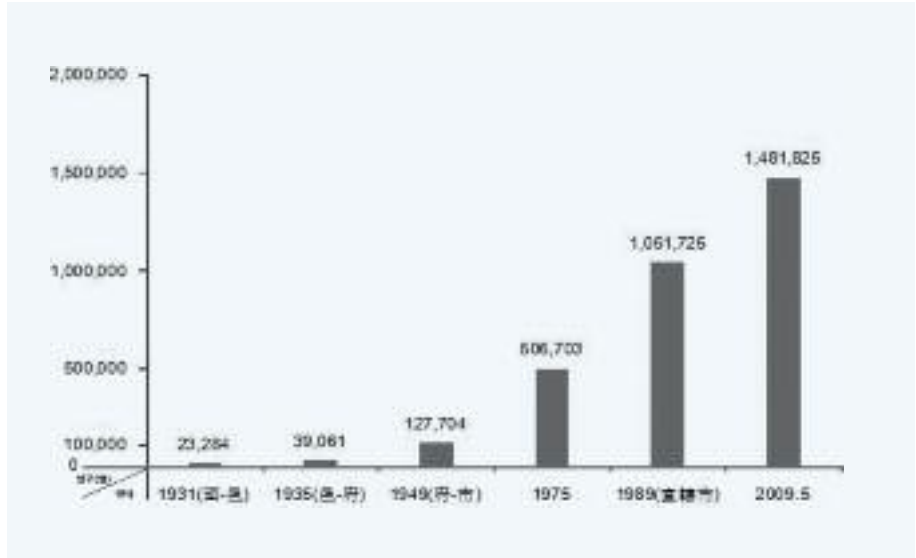
김보성 전 대전광역시장, 현 대전광역시행정동우회 회장

대전발전의 개황

대전(大田)지명은 원래「한밭」이었으며 지형은 3개 수계(대전천, 유등천, 갑천)로 이루어진 분지형 평원으로 강수량 연평균 1,300mm로 자연 기후가 살기편한 환경적 좋은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대전은 국토의 중심부이며 삼남(三南)의 교통요충지이기에 우리나라의 대동맥인 경부철도개통과 더불어 신흥도시로 급부상하였고 이어서 고속도로 개통과 한국의 테크노밸리인「대덕전문(專門)연구단지」가 조성되어 성장 잠재력이 타 도시에 비해 우월하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지역특성 때문에 대전은 구한말 고종 32년 지방관제를 개정할 때 회덕군 산내면 대전리(한밭)로 표기되었으며, 그 후 「대전」이란 지명(地名)은 일본 강점기에 군(郡)·면(面)폐합에 의하여 대전리(里)가 대전면(面)으로, 1931년에는 인구 23만명의 대전읍으로 1932. 10월에 충청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읍(한밭)으로 이전되었고, 1935년에 대전읍이 대전부(府)로 개칭되었으며, 1949. 8. 15 대전부가 대전시로 개편되었다. 1989년 1. 1에는 대전직할시로 승격되었으며 1995년에는 대전광역시로 개칭되어, 2009년 현재는 인구 150만명에 육박하는, 전국 6대 도시로 급성장하면서 거시적 발전 성장 동력이 풍부한 도시라 본다.



발전의 계기와 동력

지역의 발전은 입지여건과 특성 등 환경적 요인 그리고 시대적 요청에 따라 개발 모델이 마련되며 이를 실행하는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행정주체의 현상인지(現象認知)와 추진 역량에 달려 있다고 본다. 여기서 개발초기의 발전계기와 현대적 발전동력을 열거해 보자.

개발초기의 대전발전의 계기는 경부철도 개통이며, 이후 고속도로 개설로 더욱 활력화 되었다.

경부철도는 1905. 1. 1에 개통되었고, 이어서 1914년(1. 11)호남선이 개통 되었고, 1932. 10월 충청남도 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 되면서 발전의 단초가 되었다고 본다.

이후 우리 정부의 근대화 과정에서 1969년 대전~서울간 경부고속도로 개통, 1971. 12. 30 호남고속도로 개통(대전~광주), 2001. 11. 21 대전고속도로 개통 등 전국이 1일 생활권화 되었고 이어 청주국제공항(1997. 4. 28)개항으로 수출 등 경제 활성화의 기능 보완이 되었다고 본다.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는

1973. 11월 과학기술처가 840만평을 대덕전문연구단지로 지정하여, 현재 74개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이 자리하여 첨단과학기술의 보루(堡壘)가 되었고 또 320만평 규모의 테크노단지 조성 등으로 첨단과학 산업단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등 종합대학이 입주하면서 과학교육의 중심도시로 부상되고 있으며 1993년경 대전인근 신도안(계룡시)에 3군사령부가 들어오면서 대전 주변개발이 활성화되었으며 최근 대전시내권에도 군수기지 사령부 등이 전입되어 지역 발전에 한몫을 하고 있다고 본다.



1984년 대덕전문연구단지



현재 대덕연구개발특구

대전발전에 초석을 이룬 특정 시정사례

대전의 급성장과 더불어 필자는 대전시장 세번 (1차(74.11.13~77.7.19)), [2차(78.8.2~80.3.11)], [3차(광역시장 95.3.30~95.6.30)]을 역임하면서 시정의 목표를 초지일관 ①서민위주의 생활행정 ②서민의 경제적 안정에 두고, 시장 운용의 3대 원칙을 道·場·環에 두었다. 이를 풀이하면

- 도(道)는 상하수도, 방화도, 고가도, 지하도, 도시철도, 도로 및 골목길, 천변도
- 장(場)은 화장장, 분뇨처리장, 주차장, 운동장, 시내버스승강장, 쓰레기처리장, 시장(장터)
- 환(環)은 환경, 공장부지, 굴뚝산업, 가로수관리, 어린이놀이터, 쌈지공원, 가로공원, 도시광장, 병원, 도시디자인, 그린벨트 관리 등을 도시행정의 핵심과제로 삼았다.

*

쾌적(快適)이란 어원은 명나라 양신(楊愼 1488~1559)의 승암집(升庵集 : 선친의 서가에서 발견)에 '인만진취(引滿盡醉) 아와초암(夜臥草庵) 수각쾌적(殊覺快適)'라는데서 따온 것인데 이를 행정에 인용한 것은 필자가 처음이라고 알고 있다. 당시 난해하다는 여론도 있었다고 기억된다.

또한 시정의 기본방침을「쾌적*한 도시건설」에 두고

- ① 상쾌한 생활환경(공기, 태양, 물, 공간)
- ② 불편없는 생활환경(주택, 교통, 상하수도, 교육)
- ③ 불안없는 생활환경(도둑 없는 고장, 거지 없는 거리, 폭력 없는 도시, 공해 없는 지역)
- ④ 영주하고 싶은 생활환경(인심 좋고 협조하여 꽃피고 숲이 우거진 환경) 실현에 최선을 다하여 왔다고 생각한다.

위와 같은 소신으로 시정(市政)을 이끌어 온 사례 중에, 전국초유의 시책, 민원 많았던 필수사업, 지역장기발전을 위한 특수시책 등을 자료가 있는 그대로 소개하고자 한다.

대전시립 화장장(火葬場) 정수원(淨愁園)설립

그간 8년 동안 화장장이 없어져서 가장 민원이 많았던 화장장 건립을 시장에 취임(74. 11)과 동시에 추진하여, 75. 12. 29에 악취나 분진 등 환경문제가 전혀 없는 최신시설(대지 424평 3기 3차식 무연돌방식)로 건립하였다.

그간 대전은 홍도동 화장장(1935년 개설부터)을 이용하여 오다 1967년 토지구획 정리 사업으로 폐쇄되어 역대시장들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그때마다 혐오시설을 기피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성공하지 못하였다. 1968년에는 동면 신상리에 건물을 지어놓고 옥천군민의 반대로 중단되어 방치상태였다. 필자도 그 후 산내면에 마련하려 하였으나 금산군민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가, 울바위라는 지명에 큰 흥미를 갖고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였으나 우여곡절이 많았다. 다만 무사히 성공해「정수원(淨愁園)」이란 이름으로 지금까지 35년 동안 시민편의를 위해 잘 제공되고 있다.

정수원도 불경에 나오는 '극락정토(極樂淨土)' 라는「淨」字와 역시 불경속의 '아생변곡(我生便哭) 군지(君知) 부(否), 일낙인간(一落人間) 만종수(萬鐘愁)' 에서 근심수「愁」를 따서 필자가 직접「정수원(淨愁園)」으로 이름을 했다. 즉 사람이 이승에서 안고 있는 모든 근심을 없애는 곳(화장장)이란 의미이다.



※불경에서

- 변곡(便哭) : 아기가 출산할 때 처음우는 소리

- 만종수(萬鐘愁) : 매우 많은 근심

대전시민회관 건립

1970년대 대전은 시민들이 함께 모여 행사를 할 만한 장소가 없어 국경일 경축행사 등 많은 시민이 모이는 집회가 있을 때에는 민간 극장을 빌려 행사를 치르는 실정이었다.

마침 필자가 1975년 3.1절 경축행사를 정동에 있는 아카데미 극장에서 마치고 시민회관 건립을 결심한 시점이었는데, 당시 가장 적지는 육군병참학교 정문주변 즉 문화동 1번지를 지목하는 여론이었다. 때문에 병참학교 측과 협의하여 군용지(잡목있는 공터)에 어린이 놀이터를 우선 조성하였다. 그 후 1975년 8. 15 경축행사를 역시 민간극장에서 하고 참석인사들과 함께 어린이 놀이터에 모여 기공식을 가졌다. 당시 시민회관(중구 문화동 1번지)을 지상2층 연건평 1,790평 규모의 건물을 착공하여 1979년에 완공하였는데 이후 각종 대회와 크고 작은 공연 및 전시 등 문화센터로 활용하여 오고 있어 대전의 명소가 됐다.

2005년 시민회관이 연정국악문화회관으로 개칭되면서 국악전용공연 중심으로 변질되어 현재 구도심권의 시민들은 시민회관으로 환원하여 행사와 공연·전시 등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갈구하고 있다.



1975년 시민회관 기공식



오늘의 시민회관(현대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

대대적 뒷골목 포장사업

1975년 당시 대전의 중심가를 제외하고는 비만 오면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라고 예사롭게 말할 정도로 뒷골목이 전혀 포장되지 못한 상태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1975년도 새마을 소득사업비 6억 4천여만원을 투입하여 골목길 86곳에 18,680m의 포장과 하수구(下水溝) 22개소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발에서 장화를 벗게 해주었다고 기억된다.

당시 사업비를 절감하여 사업량을 늘이려고 시보유 덤프트럭 등 장비를 동원투입



대전천변 인동 쌀시장 골목(비포장)

하였고, 전반기 당시 계장은 시공방법을 개선 (철근없이 막자갈을 다져 깔기) 하여 민원(철근이 있으면 상·하도 공사시 굴착에 어려움)을 해소했다.

대전 제2공단조성

이미 73년에 조성된 145,218평(480,059,504㎡) 제1공단 옆에, 235,000평(776,859,504㎡)의 제2공단을 확장 조성하려고, 전임시장 들이 중앙(건설부)에 공단장려지구 지정을 수차 요청하였으나 농림부에서 농지잠식이라는 이유로 계속 반대해서 75년도 대통령(박정희) 지방 연두순시시에 건의케되어, 청와대 윤근환 농림비서관이 헬기로 농림·건설 차관 그리고 필자와 함께 현지시찰 후 즉시 건설부의 허가(지정)를 득하여 추진케 되었다. 당시 정지공사설계비는 10억원이었는데, 공사부찰제 낙찰로 6억 3천만원이라는 파격적인 공사비로 공단조성이 진행되었는데, 이와 같은 저가 낙찰이 가능하였던 것은 필자가 공사비 절감에 대하여 고심하던 중, 당시 국내보유 건설중장비를 조사해보니 대부분의 중장비가 놓고 있는 실정(월남전 잉여장비와 호남고속도로 건설장비)



1973년 대전공업단지 전경



1976년 대전공업단지 제2공단 기공식

이여서 장비투입에는 연료비만 있어도 된다고 판단됐다.

때문에 대전 제2공단 조성은 6억 3천만원이라는 유래 없는 저가(공장부지 3.3㎡ 당 9,000원을 초과하지 않도록)로 1976년 겨울에 정지공사를 끝내고 1977년에 제2공단이 완공되었다. 당시 1공단에는 44개 업체가 가동하고 있었고, 2단지에는 38개 업체가 입주되었으며, 1978년도 말 1, 2공단의 생산실적 총액은 445억에 달하여 지역경제 활력화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고 본다.

시립 조산실 열다



당시 대전시 보건소에는 간호사와 가족계획 요원 등 21명이 근무 중인데 그 가운데 산파면허소지자도 여럿이 있는것에 착안해서 공가로 방치중인 옛 보건소 건물을 개조해서 75년 4월부터 시립 조산실로 활용했다. 인근에 산부인과 개업의사를 촉탁으로 위촉해 놓고 보건소의 산파자격자를 차출해서

1일 3교대로 근무케 했다. 조산료를 거의 무료화 한 관계로 당시 개업 산파협회에서 자기들의 영업권 침해라고 항의 받은바도 있다.

사진은 첫 출산아기를 내자와 함께 미역을 사가지고 축하하러 갔을 때이다.

당시에는 통행금지(밤 12시부터 4시 사이)가 있어 응급환자 발생시에는 어려움이 많아 시청 숙직차량을 응급수송 차량으로 사용하여 시민들이 신고하면 즉시 출동하는 등 특수시책으로 「119」역할을 했다.

백내장 무료 시술 - 광명 찾아주기



필자가 1975년 말경, 중앙지(조간)에 우리나라 안과학회에서 발표한 기사에 의하면 많은 실명자 중 백내장 환자만은 광명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으나 수술비 때문에 그냥 고생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착안한 사업으로 사회적으로 크게 호응을 받았다.

48개동별로 60세 이상 구호대상자 중 1인을 선택하는데 당뇨, 고혈압, 결핵 등 환자는 수술불가로 예비진찰을 하는데 5명

중 1인을 고르기가 어려워 결국 목표의 절반인 24명을 시술했다. 유명한 이안과와 협약 하는데 수술 후 2주일간 입원치료가 원칙이고 1인 당 15만원의 비용이 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입원일수가 줄거나 늘려야만 할 환자도 있을 수 있다고 해서 1인당 10만원으로 협약했었다. 사업이 끝나고 간담회 때 안경을 선사했다. 당사자보다 더 기뻐하며 고마워하는 이들은 며느리들이었다.

시술비를 공적자금(대전시 예산)에서 부담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 시행한 방법으로 이 사업이 사회적으로 크게 호평을 받았으며 그 후 적십자사, 라이온스, 로타리 클럽 등 자선봉사단체는 물론이고 타 시도에서도 모범 사례로 사업을 채택했다. 국제 라이온스 협회에서는 지금도 계속 이 사업을 가장 중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내 12개 연탄공장 교외이전



1979년 연탄공장

70년대초 대전시내에는 12개 연탄공장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 연탄 원료인 분탄(粉炭)의 비산으로 여름에 학교 교실창문을 열지 못하고 수업해야 했고 가정에서는 빨래를 널지 못하는 등 당시 이와 같은 환경을 시급히 개선해야만 했으나, 집단화해서

공해없이 운영할 수 있는 적지를 찾기가 쉽지 아니하여 결국 청와대 까지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정치력을 동원해서 그린벨트인 대덕군 회덕면 신대 연축리 일대 20여만평(661157m²)을 대전 연료 단지로 조성(공장 2개동 철도인입선 등)을 추진하면서, 12개 공장을 생산 연탄의 열량확보 등 지도감독상 필수 사항인 2개군으로 합병 이전하도록 종용(A군: 함태, 동보, 새마을, 풍진, 보경 B군: 대림, 신진, 대보, 동창, 선광, 영광, 강원) 하였으나 기업합병이 늦어지므로 이전도 지연되었으나, 1975. 10. 31 시내연탄공장(12개소)철거명령을 내려 당해년에 이전케 하였다.

그 후 대전시내는 연탄 먼지 공해에서 벗어났다.

자연성 쓰레기 자가 처리 실시 - 분리수거의 효시(嚆矢)

당시의 배출되는 쓰레기는 70%가 연탄재와 음식물쓰레기에 생활 잡쓰레기가 혼재 돼서 그의 처리가 행정상 큰 고민거리였다. 그래서 1976. 2월부터 자연성 쓰레기를 자가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비닐, 고물, 폐지 등 재활용품은 별도 수거하는 방안을 범시민 참여 운동으로 전개하여, 수익금 연간 1억 3천여만원을 시민들에게 환원하였으며 이는

대부분 마을부녀회 기금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방법이 요즘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의 효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도시공간 녹화사업

1975년도 4월중의 시정 구호를 「너도나도 나무심어 푸른도시 이룩하자」 정하고 한 집 한 그루 나무심기를 권장하는 등으로 당년에 30만 그루 나무심기를 추진하여 푸른도시 가꾸기에 힘을 썼다.

아울러 도로변 공원화에 착안하여 1975년에 유성과 서대전간 도로변을 시범관광도로로 만들 계획으로 공군교육 사령부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사령부부지 8,160㎡에 가로공원을 조성하였다.

이렇게 큰 가로공원 조성은 처음있는 일이라 당시 충남일보(현 대전일보)에서 현수 및 현수금 모금운동을 펴 주어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성모병원 앞 대고오거리 등 교차로에 교통섬을 조성해서 사고예방과 도시녹화에 크게 기여했다.

고속버스터미널 이전개설



1976년 대전고속버스터미널 기공식



1979년 고속버스공용정류장 준공

경부고속도로 대전 톨게이트 입구 일대를 고속버스 정류장으로 도시계획 했으나 그 일대에는 보기 흉한 낡은 초가집 41채가 산재해 있었다. 그것은 20여년전부터 있는 음성 나환자촌인 애경원이 있었다. 이들을 대전시의 주택 특별회계자금을 융자해서 이사시키려 해도 예정지역 주민들의 결사반대로 번번히 무산되고 또 공적자금을 융자함에 그들만의 상호보증은 실효가 없는 것이 뻔한 일이라 행정적 고민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러한 고민 끝에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인근 잡종지에 택지를 조성해서 주택 41동, 초등학교 분교, 교회, 계사를 새로 건립하여 전화, 공동목욕탕까지 갖춰 이들을 이주(현재는 타지방으로 이주했음)시키고, 그들의 입주에 필요한 융자금 재정적 보증

이 난제였는데 터미널 사업면허를 득한 재일교포 1인과 지방인사 3인이 공동주주인 삼양산업법인과 주주전원이 개인적으로 용자금 재정을 보증하여 주어 이주주택 문제점을 해결과 동시에 대전 고속버스 터미널이 탄생하였다. 이로인하여 고속터미널 일대에는 새로운 상권과 시가지가 형성되어 고속도로 I.C와 연계되어 대전의 관문기능을 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터미널 건물이 노후되어 최신 디자인으로 불원간 새로운 초현대식 터미널이 재탄생되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으로 확신한다.

위험성 많은 철도건설목에 정림·도마육교가설

70년대 초 호남철도와 논산간 국도가 교차하던 도마동과 정림건설목은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위험성 크며, 교통체증(1일 5,000여대)이 극심한 실정이었으나 당시 철도청과의 호남선 복선공사 추진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철도청 단독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76년 11월 2일 합의하여, 오늘날과 같은 과수원교를 겸한 정림육교와 주택지역 복개를 겸한 도마육교가 설치되어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하였다.

상수시설 대청댐개통 확장 - 식수난 완전해소



70년대 대전시민들의 식수(상수도)공급원은 세천수원지 3,500m³ 산성양수장 20,000m³ 정림양수장 20,000m³외에 저리자금인 대일 청구권자금 차입으로 신설한 회덕 정수장 50,000m³을 포함하여 총 93,500m³으로도 상수도 공급 부족한 현상이 상존하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청댐 준공에 대비하여 대청댐 개통 상수도 1,000,000m³까지 확보 보급될 수 있도록 회덕면 송촌리 30,000평 규모의 부지위에 양수시설을 확장해 나갔다. 이어서 78년 1월부터 대청댐 도수로 터널 관통공사가 1년 8개월간의 공사(지하 90m의 도수로 터널)를 끝내고 79. 9. 11준공되어 1일 1,000,000m³식수 공급이 가능해져 대전시가 전국 제일의 풍부한 수돗물 사용 도시가 되었으며, 인근 계룡시까지 공급하고도 아직 많은 여유가 있다.

제60회 전국체육대회를 인정체전으로 마무리

1979년 10월 제60회 전국체전 시에는 총 45억여원을 투입하여 메인스타디움, 실내수영장, 야구장, 승마장 등을 신축하고 충무체육관과 기타 보조 경기장과 더불어 시가지정화 사업에 힘써 대전시발전이 10년 앞당겨졌다고 본다.

또한 총 사업비 50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국도 17호(오정동~신탄진간)국도확장사



업을 실시, 계룡로 육교가설 등 37건의 사업이 추진되었고 대전 시내 주요간선도로 등 156개소를 포장하였으며 채무부담 행위로 시민회관도 이때에 완공되어 다음해에 내무부 특별교부세로 공사비를 지불했다.

특히 전국체전 기간 동안 일부 해외교포 선수단의 민박을 실시하는 한편, 야간에는 대전역과 충남도청간 도로를 완전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 젊은이들에게 낭만의 거리로 제공하여 크게 환영 받았다.

서대전 4거리와 시민공원 조성

당시 법상 국유지가 도시계획 이용시설로 고시확정되면 관할관청이 관리권을 갖게 되어있다. 그래서 많은 국유림,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이 그에 속한다. 서대전일대는 서울의 용산처럼 일정부부터 일본육군이 연병장, 군부학교 등으로 점유해 왔다. 이는 대전시의 도시성장과 주민생활에 최대 불편사항이었다. 때문에 필자는 군시설의 교외 이전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끈질기게 노력했다.

때문에 대전시장에 부임(74. 11)과 동시에 서대전 삼거리를 네거리로 만들어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자는 의지를 갖고 1976년 도시재정비 계획에 계룡로를 전 대전일보사 앞을 지나 보문산 오거리에 부쳐 네거리를 광로화하면서 1만평(33057㎡)을 광장으로 더 계획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중앙도시계획위원 중에는 국방부 시설국장이 당연직위원이라 대전시의 의도를 훤히 들여다 보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약 3,300㎡(1,000평)은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의 숙소(아파트) 건설에 양보하고 나머지는 광장으로 타협되었다. 국방부 입장에서는 이대로 확정되면 병참학교를 이전하는데 소요예산(군시설 교외 이전 특별회계) 부족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중앙도시계획의 확정 고시전에 9,000평(29,752㎡)을 민간에 불하하기로 협의하고 서둘러 3,000평(9917㎡)은 국방부출입 언론인들에게 분할매도계약하고, 잔여 6,000평(19,834㎡)은 우리나라 유일의 피혁군수공장인 대전피혁의 주주 2인에게 분양계약한 후 정부(건설부)에서 대전시도시재정비 계획이 확정발표(1976. 3. 27 건설부고시 제37호)되었다. 추진과정에서 언론인들에게 분양계약된 3,000평(9,917

m²)은 계약해서 국방부 소유로 환원하도록 되었으나, 이 약 3,000평(9917m²)은 아래와 같은 경유로 인하여 대전시 소유로 귀속조치하고, 잔여 약 6,000평(19834m²)은 군수공장이라는 특수관계로 환원받지 못하여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전피혁소유로 남아 있다.

참고로 약 3,000평(9917m²)을 대전시 소유(현 야외음악당 주변)로 결정된 요인은 60년대 말에 시행한 육군에서 갈마동에 하사관 주택단지를 무단(부당)으로 조성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해온바 있어 인근 갈마동지구 구획정리 사업구역에 포함하여 양성화(채비지 명목)해서 군과 협의·교환 정리하였다.

하수·분뇨 종말처리장



75. 8. 30 오정동에 하수와 분뇨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초현대식 종말처리장을 4억여원의 국비를 보조받아 투자 하였다. 이때 기계식은 고장과 부식으로 단점이 많고 소화식은 2개의 대형탱크형이라 설치면적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으나 고장이 없는 장점이 있어서 소화식을 채택해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후 시설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시켜 잘 사용되고 있다. 당시 국내에 선례가 없어서 수도국 기술직 중견간부를 일본에 파견해서 여러날 기술을 습득해온 바도 있다. 이때 유천동 지금 삼부 아파트 지역에 있었던 우시장과 도축장은 인가가 없었던 오정동으로 옮기고 조폐창은 금산으로 이전하고 악취로 민원이 계속된 대전 피혁공장을 관 외로 이전시켜 초등학교도 새로 설립하는 등 그 지역을 좋은 환경으로 만들었다.

앞으로 기대와 과제

대전은「첨단과학기술의 메카」답게 명실공히 과학도시가 되도록 150만 시민 모두 총합적 노력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보며 대전의 비전을 위하여 아래 몇 가지 사안을 제안하면서 이의 실천을 위하여는「행정의 기술성」이 더욱 요청되는 사안이라 생각한다.

__ 대덕 연구개발특구와 더불어 대덕테크노밸리 활성화가 절실하다.

- 현 대덕연구개발특구(중전 대덕전문연구단지)가 처음에는 상주인구 50,000명 규모의 사이언스시티로 구상 한 바도 있었으며, 연구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으로 1975년에 유성CC를 조성하여 연구단지 과학자들에게 스포츠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독립입업시험장을 이전하면서까지 일찍이 골프장을 만들게 되었다.
- 때문에 대전은 연구소, 대학, 기업체, 3위 일체가 되어 첨단기술이 실용화되는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고,
- 그러기 위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와 과학비즈니스벨트 형성이 필연적이다. 다행히 요즈음 독일 울리히 연구소(세계적 명성있는 의료분야 연구소)의 대덕 R&D특구내에 공동 연구개발센터를 설치하는 협약서를 조인하여 독일 울리히 연구소의 대전등지는 국책사업 유치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믿으며
- 특히 2009. 6. 16 코리아 메디밸리(Korea Medi-Valley)의 비전을 담은 대전광역시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제안서가 정부로부터 인정받기를 기대한다.

__ 엑스포 과학공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첨단연구소와 연계한 첨단문화산업단지로서 기능을 보완하여 원천기술의 실용화가 이루어져 고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__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한 도시 활성화를 꾀하려면 도시철도 2-3호선 건설이 필연적이라 생각한다.

__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3대 하천을 활용한 천변도로망 확충이 급선무라고 본다.

__ 청주공항과의 연계한 고속도로 개설과 그린벨트를 엄격히 조사 선별하여 저렴한 공장용지 공급을 위해 도시재정비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__ 고속버스 터미널 및 시외버스 터미널과 대전역을 연계하는 보다 빠른 교통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__ 최근 대전시 주변 변화가 일고 있다.

즉 인근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2007. 7. 20 착공 되었으며 이어 지난 6. 17에는 충청남도청 이전 신도시 기공식이 예산·홍성에서 이루어졌다. 이로 인하여 대전시 발전이 저해되지 않을까 염려되므로 이에 대한 거시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 대전발전의 부작용 조짐으로는 우선 인구증가의 둔화현상이다. 즉 2008년 5월 전 년동기대비 인구증가는 4,540명이었는데 2009년 5월말 전년 동기대비 인구증가는 4,405명으로 증가폭이 감소했다.
- 특히 우리시도 근간 둔산 신시가지 조성 후 동구와 중구 등 구도심권의 공동화 현상이 현저 하여 이의 보완책에 부심하고 있는 현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앞으로 대전시가 위축되지 않고 지속발전하려면 신도시 못지 않는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특단의 시책이 강구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대전100년사(대전광역시 시사 편찬위원회)

한국행정사(김운태 · 오석홍 공저)

행정학개론(김찬동 저)

신문기사 참고(전 충남일보, 중앙지)